

지난해 개막한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과 이견희 컬렉션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에는 관람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설날 연휴 기간에는 전시장을 찾아 문화의 향기에 빠져 보는 건 어떨까.



오는 29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

# 조르주 루오를 만나다

"가장 간결한 선으로 심오한 인간의 심상을 형상화해낸 영원히 불타는 영혼의 소유자 루오, 그를 이해하는 것은 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광양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서 열리고 있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에 다녀간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소설가의 말이다.

지난해 10월 개막한 루오전에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9일 전시 마감을 앞두고 주말에는 매일 15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도 많다. 전남도립미술관은 깊이 있는 전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도슨트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설날 연휴 기간 휴일 없이 문을 연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포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과의 협력으로 개최된 이 전시는 루오의 회화, 스테인드글라스, 판화, 도자기 등 총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국제전이다. 조르주 루오(1871-1958)는 당대 표현주의나 야수파 화가들과 작품 경향을 공유하고 있지만 어떤 경향에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화가다.

전시작은 유화, 드로잉, 스테인드글라스, 도자기, 타피스 트리 등 그의 전 생애를 망라한 작품으로 원색의 화려한 색

감과 두터운 마티에르, 굵은 선면 등 루오 작품의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명작들이다.

58점의 판화 연작 '미제레레(Miserere)' '루드밀라', '베로나카' 등의 대표작품과 그가 평생을 두고 작업했던 광대와 뱀에로를 소재로 한 '무지개 곡마단의 소녀 마술사', '어린 뱀에로'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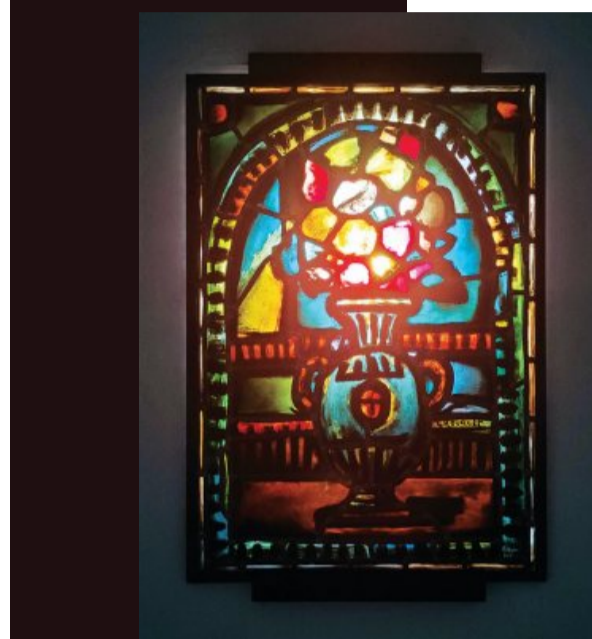
최근에는 BTS의 리더 RM이 방문, 화제가 됐다. 미술 애호가로 알려진 RM은 전시 출품작 중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작은 숲 I (1949)'을 SNS 계정 인증샷으로 공개했고 '미제레레' 중 '마음이 고결할수록 목덜미는 덜 뺏혔다'도 언급했다.

이번 루오전과 함께 열리는 연계 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 미술:시선 공명'에서는 이종섭·구본웅·한묵·이봉상 등 23명 작가의 작품 40여점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2023 신소장품전', '고화츨 작가' 특별전도 함께 진행중이다.

도슨트 운영 시간은 평일(오전 11시~오후 1시·2시30분~4시), 주말(오전 10시30분~낮 12시~오후 2시30분~4시~5시). 티켓가격 성인(19세 이상) 1만 5000원, 어린이·중고등학생(7~18세) 9000원. 롯데카드·전남도민 20% 할인.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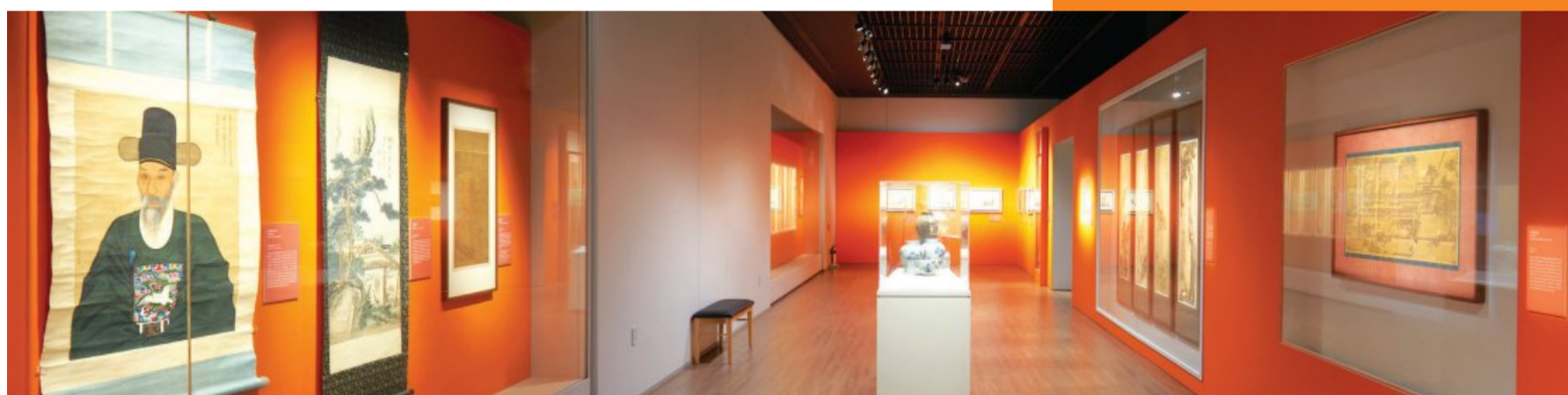


조르주 루오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작은 숲'



분장하지 않은 자그누구인가

29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회화, 스테인드 글라스 등



# 이견희 특별전에 가다

국립광주박물관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 '추성부도'·'혜능상매도'·'혜원화첩' 등

이번 설 연휴에도 국립광주박물관의 고 이견희 회장 기증 특별전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주제로 진행됐던 특별전에는 총 26만4639명이 관람을 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소개됐던 우리 문화재를 지역순회 차원에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보인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지난해 말까지 전시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물관은 새해부터 김홍도의 '추성부도' (보물) 등 다양한 서화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추성부도'는 중국 송대 구양수의 시 '추성부' (秋聲賦)를 주제로 1805년 제작된 작품으로 단원 작품 중 가장 말년작이다. 추성(가을 소리)에 빛낸 그의 심상을 가능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김홍도의 기년

광주박물관 고 이견희 회장 기증 특별전 전시실 모습. <광주박물관 제공>

명(紀年銘)이 있는 작품 중 가장 말년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홍도는 화조화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갖춘 화가였다. 소나무, 연꽃, 국화, 파초를 그린 후 화제와 잘 어울리는 제시(題詩)들을 적었다.

중국 선종의 6대조인 혜능(638-713)이 수행하는 고사(故事)를 그린 작품 '혜능상매도'도 눈길을 끈다. 가부좌를 틀어 아래로 매화나무 가지가 보인다. 또한 전시실에서는 김홍도 작품 외에 신윤복의 '혜원화첩'을 비롯해 '취도월유', 이상좌의 '이상좌불화첩' (보물), 최복의 '한강조어도', 홍세섭의 10폭 '화조도' 등도 만날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이 애호했던 청자와 이견희 회장이 즐겼다는 백자, 분청사기 등 다양한 도자도 전시돼 있다. 선과 색 그리고 무늬가 일품인 청자는 보는 이에게 고아한 감성을 선사한다.

아울러 6세기 작품인 '일광삼존상' (국보),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 초로 추정되는 시기의 '보살' (보물)이 발하는 아우라도 이채롭다. 조선시대 불경 언해서인 '월인석보 권 11' (보물)를 통해서도 초기 한글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서화를 비롯해 도자류, 불교 공예품 등 170건 271점이 29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무료 관람. 22일 설날 휴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자 청화 대나무무늬각병

그린알로에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